



2026년 10월 25일(제1323호) 연중 제30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필요한 것을 내어줄”

오늘 주님께서는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율법 교사 가운데 한 사람의 물음에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가는 계명에 이어 둘째도 이와 같다고 하시며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첫째가는 계명과 둘째가는 계명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1독서 탈출기의 말씀을 봅시다.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되며 과부나 고아도 억눌러서는 안 되고, 채권자처럼 행세해서도, 이자를 물려서도 안 되며,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되돌려주라 하십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누구보다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면서 보게 되는 손해를 우리는 손해로 여깁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여 내어주는 사랑. 모든 것을 다 바쳐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손해를 본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랑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에서 우리는 감사송을 바칩니다. 그 가운데 공통 감사송 4에서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도움이 되나이다.’라는 구절을 마주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분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모습이란 어떠한지 이야기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이란 필요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필요한 것을 내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고, 듣고, 알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사랑은 관심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그러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방식으로, 필요에 맞춰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처럼 우리의 사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당신 외아들마저 이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하느님 아버지의 그 엄청난 손해.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그분의 크신 사랑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느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을 가르쳐주려 오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하시며,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으로 도와주시기를 청하며, 오늘 말씀과 함께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희윤(미키엘) 신부
명성대(공군 제8진투비행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회 답 송 제 2 독 시 복음 환호송

탈출 22,20-26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1테살 1,5ㄴ-10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 음 영 성 제 송

마태 22,34-40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진주교 군중교구사(군 시목 50년사)

유 신부는 해병대 사령부 군중실 군중과장으로서 참모들과 인간적인 교분을 두텁게 하며 전교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신현준 준장을 영세시켰는데, 이는 군중생활 초년생이었던 유 신부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한편 유 신부를 도와 전교에 열심히였던 해병대 사령부 군중 하사관 고종옥(마태오)은 전역 후 유 신부의 추천으로 신학교에 진학하여 1963년 사제로 서품되었다.

해병대는 기동력 보급이 타군보다 양호하였고 활동면에서도 크게 제약받는 사례가 드물었으며 개신교 목사들과의 마찰도 거의 없었다. 사령관이 천주교 신자라는 사실이 은연중 군중신부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으며 이후 많은 장교들이 영세함으로써 해병대의 천주교 군중 업무는 원활하게 전개되었다. 유 신부는 해군병원을 비롯하여 여러 부대를 방문하여 많은 군인들을 교회로 이끌었다. 대민 사업에도 주력하여 가톨릭 구제회의 도움으로 해병대 사령부 지역은 물론 전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수복 지역과 백령도의 주민들에게 많은 구제품을 나누어 주었다.

1955년 2월 26일 유 신부는 해군본부로 전속되었고 해병대 사령부에는 신부 부족으로 후임자가 부임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약 6년만인 1961년 7월 12일 김병도 신부가 부임해서야 해병대 사령부의 군중활동은 재개되었다.

5) 해병사단에서의 군중활동

해군의 세 번째 군중신부는 1953년 5월 1일 해사 특교대 15차로 입대한 김창석 신부로서 중위로 임관되어 해병대에 파견되었다. 김창석 신부는 해군사관학교에서의 3개월 교육기간 중 사관생도 7명을 영세, 입교시켰는데 그 중 2명(유시중, 고종덕)은 후에 제독이 되었다. 5월 20일 김 신부는 제1전투단의 군중실 보좌관으로 부임하였는데, 당시는 휴전을 앞두고 각 전선에서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공방전이 한창이던 때였다. <다음 주에 계속>

『진주교 군중교구사(군 시목 50년사)』 발췌, 진주교 군중교구

복

음

목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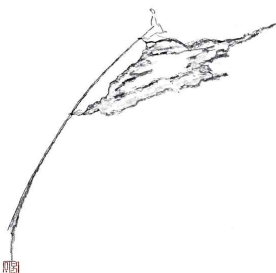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진정성

누군가를 위해,
나를 내던져 본 적이 있는가.

내가 하는 일에,
나를 불살라 본 적이 있는가.

모두가 잘 살자는
꿈을 안고,
바람에 다 찍혀
너덜너덜해진 깃발을 보며,
살아온 내 시간을
쏟아온 내 마음을
돌아본다.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마르틴 판 니우엔호비의 두 쪽 제단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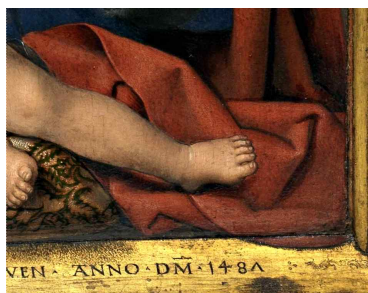


두 쪽으로 나뉜 이 작품은 화면이 분리되어 있지만, 성모자와 주문자 마르틴을 하나의 방 안에 있는 것처럼 연결하는 장치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 이를 통해 관람자는 마르틴의 기도와 묵상에 동참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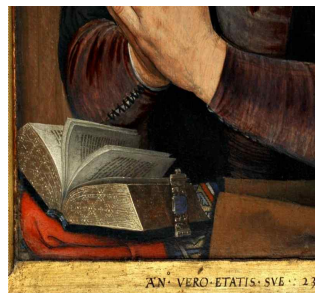
한스 멤링(Hans Memling), 1487년 제작

파넬에 유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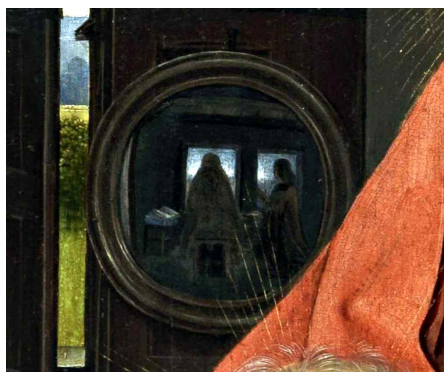
상 요한 병원, 벨기에 브뤼헤



등장인물은 모두 당시 유행하던 붉은 카펫이 깔린 하나의 선반 뒤에 앉아 있다. 성모님의 붉은 망토는 아기 예수님의 발 아래로 흘러내려 액자 중앙 분할선을 가로지르며, 아기 예수님이 앉아 계신 작은 방석의 그림자도 액자에 살짝 드리워져 우리의 공간에까지 성모자의 존재가 스며들게 된다.



또한 마르틴의 필사본도 성모님의 옷자락 한 귀퉁이 위에 놓여 있어, 물리적으로 양쪽으로 나뉜 패널이 하나의 연속된 공간임을 체감하게 한다. 창 너머 풍경은 두 패널에 걸쳐 이어지며 사랑의 호수(Minnewater)를 담고 있어, 작품 전체가 실제 브뤼헤에 있는 마르틴의 집과 그 주변을 연상시키는 구체적인 공간임을 암시한다.



왼쪽 패널 벽의 볼록거울은 이 작품의 핵심 장치다. 거울에는 의자에 앉은 성모 마리아와 옆모습으로 무릎 꿇은 마르틴이 함께 비친다. 이 반사 이미지는 두 인물이 같은 물리적 공간에 있음을 보여 주며, 관람자에게 “성모자가 실제로 이 방에 나타났나, 아니면 기도 중에 마르틴에게만 보이는 환시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재질·광택·반사가 현미경 수준으로 정교하게 묘사된 거울은 플랑드르 회화 전통을 이어가는 요소로, 특히 얀 판 에이크의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속 볼록거울을 연상시키며, ‘작은 원 안에 세계 전체를 비추는’ 시각적 기교를 보여 준다.

멤링은 이 작품이 실제로 탁자나 작은 제단 위에 약간 비스듬히 펼쳐질 것을 고려해, 오른쪽 패널 뒤쪽 벽의 원근을 가파르게 설계했다. 두 패널을 대각선으로 펼쳐 세우면 마르틴의 시선은 화면 속 성모자에게 더 곧게 향하고, 거울에 포착된 공간 관계도 실제 배치와 잘 맞아떨어진다. 이러한 장치는 관람자의 현실 공간과 화면 속 신성 공간 사이의 경계를 흐리며, 오늘날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도 마르틴과 함께 성모자 앞에 서 있다는 감각을 강화한다.

김은혜(엘리사벳)

교구소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30주일: 동해(해군) 계강준 신부

◆ 교구장 동정

- 소성(제17사단) 성당 사목방문
때: 10월 25일(주일)

- 흑룡(해병대6여단) 성당 축성식
때: 10월 27일(화) 10:30

“작은 가정교회” ■ 이루는 존인성사의 해